항해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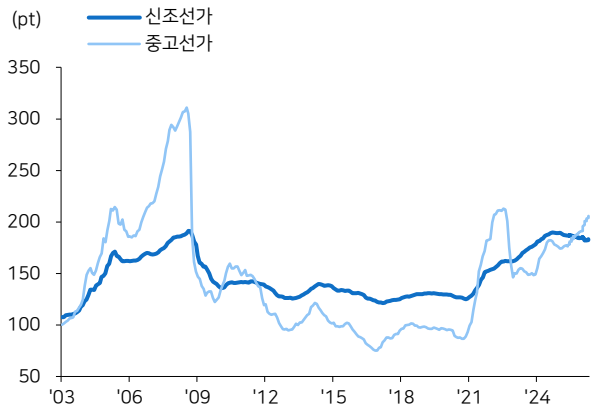
meritz 메리츠증권

2026. 4. 20 (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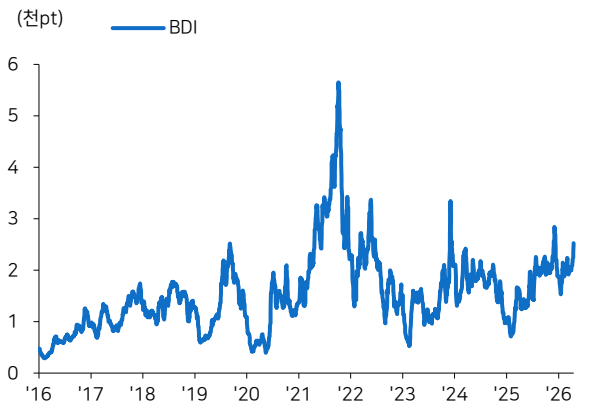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3.3.6p (+0.7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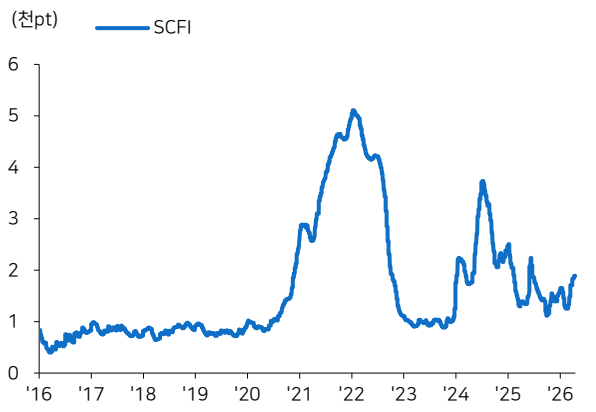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99.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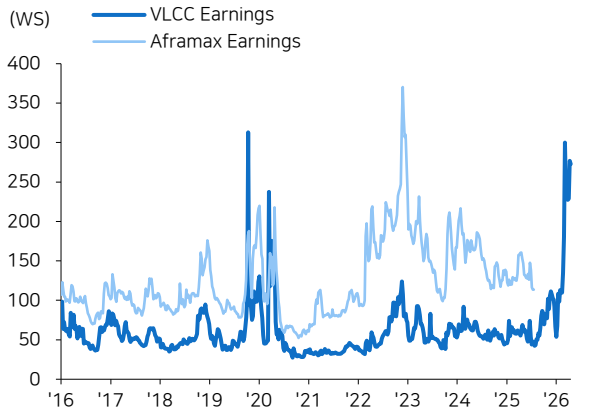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523.0p (+39.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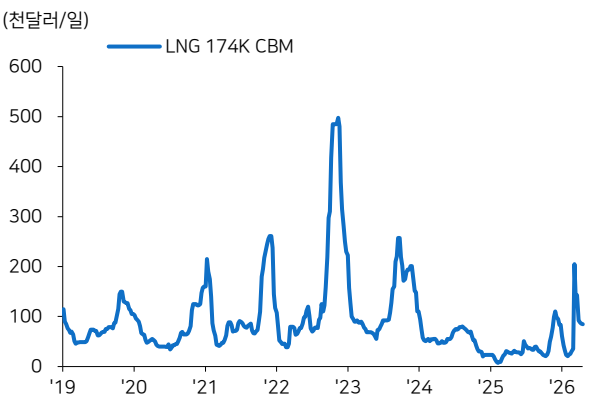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886.5(-4.2 WoW)



VLCC Spot Rate 272.9WS (-4.0p WoW)



LNG Spot 운임 84.5천달러 (-1.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MASGA 핵심축' 거제시-美 필라델피아, 조선동맹 구축 강화 (뉴스 1) https://zrr.kr/LZEjBC

경상남도 거제시가 미국 필라델피아시와 조선산업 중심의 협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실무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보도됨. 실무대표단은 필라델피아 지방정부 및 의회와 만나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인 마스가(MASGA)의 안정적 추진을 논의하며, 특히 현지에 파견될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숙련 인력들의 안전한 정착과 주거 · 의료 · 치안 지원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전해짐. 또한 한국 조선기자재 업체의 현지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와 관세 예외 조치를 제안하고, 한화오션의 기술 매뉴얼을 활용한 현지 인력 교육 과정 개발 및 실무 워킹그룹 구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한미 조선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HD 현대중공업, 美 최대 방산전시회 첫 참가..."독보적 함정 역량 선보여" (뉴시스) https://zrr.kr/z2EcNL

HD현대중공업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 방산 전시회인 '해양항공우주 전시회(SAS 2026)'에 국내 기업 최초로 참가해 독자 개발한 첨단 함정 기술력을 선보인다고 보도됨. 이번 전시회에서 HD현대중공업은 이지스 구축함과 무인 체계 기술 등을 통해 미 해군의 함대 재건 전략을 뒷받침할 최적의 글로벌 파트너임을 강조했으며, 이어 오는 20일부터는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DSA 2026'에도 참여해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주원호 사장은 말레이시아 해군의 중장기 함대 재편 계획에 부합하는 다목적 지원함과 잠수함 등 맞춤형 첨단 플랫폼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알려짐.

"산업 기여 높여라" 캐나다, 잠수함 입찰 연장하며 한화오션·TKMS 압박 (조세일보) https://zrr.kr/LZI8bk

캐나다 정부가 최대 1,200억 달러(약 1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입찰 기한을 연장하며, 최종 후보인 한화오션과 독일 TKMS에 자국 산업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수정 제안서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됨.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된 캐나다의 국방 산업 전략(DIS)을 반영해 단순 기술력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끌어내기 위한 이례적인 협상 전략으로 풀이되며, 계약 기업은 사업 규모에 상응하는 산업 활동을 캐나다 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절충교역'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전해짐. 한화오션은 이미 연평균 22,500개의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산업 분야 투자 계획이 반영되어 있다는 입장이라고 알려짐.

'Just the start': Trader BGN boosts VLGC fleet with four-ship order in South Korea (TradeWinds) https://zrr.kr/nxYcc0

에너지 트레이딩 기업 BGN International이 HD현대중공업에 90,000cbm급 VLGC 4척을 총 6,747억 원(약 4억 5,600만 달러)에 발주하며 해운 부문 확장에 나선다고 보도됨. 이번에 발주된 선박들은 LPG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운송도 가능한 이중연료 추진선으로 2029년 하반기까지 인도될 예정이며, BGN은 이를 통해 2028년까지 10척의 LPG 선단과 2027년까지 2척의 LNG 선단을 확보한다는 전략적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전해짐. BGN International은 현재 약 40척의 현대식 선단을 운영 중임에도 여전히 선복량이 부족한 상태로, 향후 HMM과의 합작 투자 등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선단 현대화를 지속할 계획이라 알려짐.

HD 현대중공업 스웨덴 쇄빙선 소송서 '판정승', 정기선 특수목적선 사업 확장 성큼 (비즈니스포스트) https://zrr.kr/OLvWCZ

스웨덴 현지 법원이 핀란드 헬싱키조선소의 입찰 재조사 요청을 기각함에 따라, 한국 조선사 한국조선해양의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이 스웨덴 해사청(SMA)과 자사 첫 쇄빙선 건조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됨. 이번 사업은 약 3억 유로 규모의 차세대 쇄빙선 1척을 2028년까지 인도하는 프로젝트로,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최저가 입찰자로 선정되었으나 2위 업체인 헬싱키조선소가 기술 사양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며 사업이 일시 중단된 바 있다고 전해짐. 이번 판결은 한화오션 등 경쟁사 대비 뒤처졌던 쇄빙선 분야의 건조 이력을 확보하고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선 고부가가치 선박 경쟁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으로 알려짐.

美 해군 MRO 시장 '속도전'...HD 현대중공업·한화오션 잇단 수주 (이투데이) https://zrr.kr/6da4tt

국내 조선업계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필두로 미 해군 함정 유지 · 보수 · 정비(MRO) 사업 수주를 빠르게 확대하며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MASGA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고 보도됨. 올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각각 2건의 정비 사업을 따내며 지난해보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중공업 또한 현지 전문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 진입을 추진하면서 국내 조선 빅3 간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라고 전해짐. 다만 현재 수주 물량이 일본을 모항으로 하는 미 7함대에 국한되어 있어, 광범위한 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외국 조선소의 정비를 제한하는 미국 내 법규 및 제도 개선과 함께 다년 계약 등의 안정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